

2017년 서울시 사회 복지직 [국어] 기출 문제 해설

01. 밑줄 친 표현의 뜻풀이가 옳지 않은 것은?

- ① 그 사람은 입이 벌어서 입맛 맞추기가 어렵다.
-음식을 심하게 가리거나 적게 먹다.
② 입이 거친 그를 흰 눈으로 보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.
-업신여기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다.
③ 이번 일은 네가 허방 짚은 격이다.
-잘못 알거나 잘못 예산하여 실패하다.
④ 새참 동안 땀을 들인 후 다시 일을 시작했다.
-땀을 일부러 많이 내서 피곤을 풀다.

정답: ④
④ 땀을 들이다: 몸을 시원하게 하여 땀을 없애다.
① 입이 벌어: 음식을 가려 먹는 것이 심하거나 먹는 양이 적다.
② 흰 눈으로 보다: 업신여기거나 못마땅하게 여기다.
③ 허방을 짚다: 잘못 알거나 잘못 예산하여 실패하다.

02. 다음 예문 중에서 관형질의 성격이 다른 하나는?

- ① 비가 오는 소리가 들린다.
② 철수는 새로 맞춘 양복을 입었다.
③ 나는 길에서 주운 지갑을 역 앞 우체통에 넣었다.
④ 윤규가 지하철에서 만났던 사람은 의사이다.

정답: ①
① '비가 오는'은 성분 생략이 없고 뒤에 오는 '소리'와 같은 의미이므로 '동격 관형절'이다.
② '양복을 맞추다', '양복을'(목적어)이 생략된 '관계 관형절'이다.
③ '지갑을 줍다', '지갑을'(목적어)이 생략된 '관계 관형절'이다.
④ '사람을 만났다', '사람을'(목적어)이 생략된 '관계 관형절'이다.

03. 주어진 단어의 자음 두 개를 <보기>의 조건에 따라 순서대로 나타낼 때, 모두 옳은 것은?

하나의 음운이 가진 조음 위치의 특성을 +라고 하고, 가지고 있지 않은 특성을 -로 규정한다. 예컨대 트은 [+치조음, -양순음, -경구개음, -연구개음, -후음]으로 나타낼 수 있다.

- ① 가로: [+경구개음], [-후음]
② 미비: [-경구개음], [+후음]
③ 부고: [+양순음], [-치조음]
④ 효과: [-후음], [-연구개음]
정답: ③
③ 'ㅂ'은 양순음[+양순음], 'ㄱ'은 연구개음[-치조음]
① 'ㄱ'은 연구개음[+경구개음], '르'는 치조음[-후음]
② '모'는 양순음[-경구개음], '브'는 양순음[+후음]
④ 'ㅎ'은 후음[-후음], 'ㄱ'은 연구개음[-연구개음]

04. 밑줄 친 ㉠을 고려할 때 표준 발음으로 옳지 않은 것은?

「표준어 규정」 제2부 표준 발음법 받침 ㅎ의 발음은 다음과 같다.
㉠ ㅎ(ㄴㅎ, ㄹㅎ) 뒤에 모음으로 시작된 어미나 접미사가 결합되는 경우에는, ㅎ을 발음하지 않는다.
예) 낳은[나은], 쌓이다[싸이다], 많아[마:나], 싫어도[시러도].....

- ① 바지가 다 닳아서[다라서] 못 입게 되었다.
② 저녁 반찬으로 찌개를 끓이고[끄리고] 있다.
③ 가지고 온 책은 책상 위에 놓아[노아] 두렴.
④ 기회를 놓치지 않은[안는] 사람이 결국에는 성공하더라.
정답: ④
④ 'ㅎ'은 발음되지 않고 'ㄴ'은 뒤로 연음되기 때문에 [아는]으로 발음해야 한다.

05. 밑줄 친 부분의 띄어쓰기가 옳은 것은?

- ① 그 친구의 키는 장대 만큼 크다.
② 그 친구의 집에는 사과, 감, 귤 등이 많이 있다.
③ 그 친구와 연락한 지 세 시간만에 만났다.
④ 그 친구의 대답이 맞는 지 모르겠다.

정답: ②
② 사물을 나열한 뒤에 쓰이는 '들'은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.
① 체언 뒤에 쓰인 '만큼'은 조사이므로 붙여 쓴다.
③ '만'은 시간 개념으로 쓰일 때는 의존명사이므로 띄어 쓴다.
④ '-는지'는 어미이므로 붙여 쓴다.

06. 문맥을 고려할 때 괄호 안의 한자가 옳은 것은?

- ① 그는 변명(辨明)을 늘어놓기에 급급했다.
② 사람의 마음가짐은 대상 인식(人識)에 영향을 끼친다.
③ 제4차 산업혁명에 능동적으로 대처(大處)해야 한다.
④ 올림픽은 국위를 선양(禪讓)하기 위한 겨루기의 장이다.

정답: ①
① 변명(辨明) - 분별할 변, 밝을 명
② 인식(認識) - 알 인, 알 식
③ 대처(對處) - 대답할 대, 살 처
④ 선양(宣揚) - 베풀 선, 오를 양

07. 다음 중 괄호 안에 들어갈 말로 가장 적절한 것은?

'*가 현대 국어에서 더 이상 사용되지 않고, '물[水]'이 현대 국어에 와서 '물'로 형태가 바뀌었으며, '어리다'가 '어리석다[愚]'로 쓰이다가 현대 국어에 와서 '나이가 어리다[幼]'의 뜻으로 바뀌어 쓰이는 것 등과 같은 예에서 알 수 있는 언어의 특성을 언어의 ()이라고 한다.

- ① 사회성 ② 역사성
③ 자의성 ④ 분절성

정답: ②
*의 소멸, 원순모음화, 어의전성 등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는 것

제시문은 "태자가 도리를 이루서어 자기가 자비하리라 하시나니"의 뜻으로 중세 국어의 표기법을 따르고 있다.

- ① '시'와 '기'는 현대 국어에 와서 단모음이 되었다. 참고로 '석보상절'이 나올 때와는 전혀 거리가 멀다.
- ② 함용병서는 중세 국어부터 근대까지 쓰였다.
- ③ '가'의 주격 조사는 임란 후(16세기 말)에 나왔다.
- ④ 모음조화는 현대 국어보다 중세 국어에서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.

14. 다음 작품과 가장 유사한 정서를 지니는 것은?

가시리 가시리잇고 나는
 브리고 가시리잇고 나는
 위 증즐가 대평성덕(大平盛代)
 날리는 엇디 살라 흥고
 브리고 가시리잇고 나는
 위 증즐가 대평성덕(大平盛代)
 잡스와 두어리마는
 선흐면 아니 올세라
 위 증즐가 대평성덕(大平盛代)
 설은 님 보내옵노니 나는
 가시는 듯 도셔 오쇼셔 나는
 위 증즐가 대평성덕(大平盛代)

- '가시리'

- ① 한용운, 「님의 침묵」
 - ② 김상용, 「남으로 창을 내겠소」
 - ③ 서정주, 「국화 옆에서」
 - ④ 김소월, 「진달래꽃」
- ▶정답: ④
- 제시문의 '가시리'는 이별의 정한을 노래한 작품이다. 이와 유사한 작품은 김소월의 '진달래꽃'이다.
- ① 한용운, 「님의 침묵」 한용운의 시집. 대표시 <님의 침묵>을 비롯하여 <최초의 임>, <잠 없는 꿈>, <당신을 보았습니다> 등 90편의 시가 실려 있다. 대부분 불교적 비유와 고도의 상징적 수법으로 쓴 서정시로 일제에 대한 저항 의식과 애족(愛族)의 정신이 짙게 나타나 있다. 1926년에 간행되었다.
 - ② 김상용, 「남으로 창을 내겠소」: 전원 생활의 즐거움을 노래함
 - ③ 서정주, 「국화 옆에서」: 중년 여인의 원숙미, 생명의 경외감을 노래함.

15. 문맥을 고려하여 ㉠~㉣을 가장 적절하게 감상한 것은?

길동이 ㉠체읍주왈(涕泣奏曰), "이 불초한 동생 길동이 본래 부형(父兄)의 훈계를 듣지 말고자 함이 아니오라, ㉡팔자 기박하여 천생(賤生)됨을 평생 한일 뿐더러가(家) 중에 시기하는 사람을 피하여 정처 없이 다니다가 천만 몽매(蒙昧)로 몸이 ㉢적당(賊黨)에 빠져 잠시 생애를 불엿더니, 죄명이 이에 미치었사오니 명일에 소제(小弟) 잡은 연유를 장계하옵고, 소제를 결박하여 나라에 바치옵소서." 하며, 담화도 날을 새우고 평명(平明)에 감사 길동을 철쇄로 결박하여 보낼새 ㉣참연(慘然)히 낮빛을 고치고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더라.

- ① ㉠: 길동이 상대를 속이기 위해 거짓 웃음을 짓고 있군.

- ② ㉡: 길동이 부형의 훈계를 듣지 않은 것을 한탄하고 있군.
- ③ ㉢: 길동의 죄명을 유추할 수 있는 단서라고 하겠군.
- ④ ㉣: 길동이 감사를 결박하고서 슬픈 표정을 짓고 있군.

- ▶정답: ③
- ③ 홍길동이 도적과 함께 행동했음을 알 수 있다.
 - ① 흐느끼며 아뢰고 있는 상황
 - ② 천생(賤生)의 몸으로 태어남을 한탄하고 있음
 - ④ 길동을 철쇄로 결박하였음

16. 다음 글의 중심 내용을 고려할 때, 글쓴이의 의도에 부합하는 반응으로 가장 옳은 것은?

경제의 글로벌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다양성이 증대되었다고 생각하기가 쉽다. 체계적 국제 운송 및 통신 시스템의 도입으로 타 문화권에서 생산된 다양한 상품들과 식품들을 한데 모을 수 있을 것 같아 보이기 때문이다. 그러나 이렇게 다채로운 문화의 경험을 원활하게 만드는 바로 그 시스템이 실제로는 그런 다양성을 깨끗이 지워버리는 한편, 세계 전역에 걸쳐 지역마다의 문화적 특성까지도 말살하고 있다. 링콘베리와 파인애플 주스는 코카콜라에, 모직과 면으로 된 옷들은 청바지에, 고원에서 자라던 토종 소들은 저지 젓소에게 그 자리를 내주었다. 다양성이란 것은 한 회사에서 만든 열가지의 청바지 중에 어느 것을 고를까 하는 문제가 절대 아니다.

- ① 지역 특산의 사과 품종을 굳이 보존할 필요가 없겠군.
- ② 글로벌 경제 시스템은 다양성 보존과는 거리가 있군.
- ③ 될 수 있으면 다국적 기업의 청바지를 사 입어야겠군.
- ④ 국제 운송 시스템은 지역 문화의 다양성을 증진시켰군.

- ▶정답: ②
- ② 경제의 글로벌화로 다양성이 증대된 것이 아니고 다양성이 말살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. 즉 다양성 보존과 거리가 있다는 내용이다.

17. 밑줄 친 부분에 사용한 표현 방법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?

넓은 벌 동쪽 끝으로
 옛이야기 지줄대는 실개천이 휘돌아 나가고,
 얼룩백이 황소가
 해설피 굵빛 게으른 울음을 우는 곳,
 —그 곳이 참하 꿈엔들 잊힐리야.

-정지용, 「향수」 중에서-

- ① 어느 집 담장을 넘어 달겨드는 / 이것은, / 치명적인 냄새
- ② 멍석 위에 나란히 잠든 반들거리는 몸 위로 살쾅살쾅 늦가을 햇볕 발 디디는 소리
- ③ 나는 한 마리 어린 짐승, / 젊은 아버지의 서느런 옷자락에 / 열(熱)로 상기한 불을 말없이 부비는 것이었다.
- ④ 피아노에 앉은 / 여자의 두 손에서는 / 끊임없이 / 열마리씩 / 스무 마리씩 / 신선한 물고기가 / 튀는 빛의 꼬리를 물고 / 쏟아진다.

- ▶정답: ③

